

**동우컴퓨터**

세월의 가르침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완벽주의를 버려라.’였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으랴. 다만 작은 실수나 틈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사람이 있을 뿐!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전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완벽한 소설을 쓰려고 하면 평생 책 한 권 못 낸다. 부족하지만 계속 글을 쓰고 책을 내다보면 점차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것 아닌가.

언젠가 외국 집회에서 영어를 통역해주는
집사가 통역을 제대로 못해 정말 애를 먹
은 적이 있다. 첫 출전일을 참작해도 평소
그 집사의 실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집
회를 마치고 그 집사에게 왜 그랬냐고 물
었더니, 아빨사, 완벽하게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 통역
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 집사는 '우리는 최
선을 다할 뿐이지, 완벽은 없다.'라는 사실
을 몰랐던 것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행로의 법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물 흐르듯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물을 보라.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며 그에 맞춰 살아간다.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로,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글게 산다. 그렇다고 물이 쫓대가 없는가? 아니다. 물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그 본자는 같다. 중심은 있지만, 고집 없이 순적하니 맑은 소리를 내며 즐겁게 사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외식(外飾)이란 울무에 걸리게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린다”(눅18:11~12)라고 말하며 완벽한 신앙을 자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다.’(마 23:27)라고 하셨다. 그들은 완벽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 속에는 신앙은 없고 돈만 추구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외식했던 것이다.

계곡 없는 산이 없고, 허물없는 사람이 없
듯 완벽한 사람은 없다. 지혜란 물 흐르듯
사는 것이다.

약속은 생명이다

2주 연속 아카데미를 인도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속삭’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셨다.

“Promise is very important!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은 생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국가 간, 기업 간, 모든 관계에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약속은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그 신뢰의 바로미터가 바로 약속 이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국가 간의 약속은 국제조약으로 성립되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북미간의 대화가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형성하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허물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북미회담이 다 될 듯 하다가도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아버려 원점으로 회귀했던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 또한 주지하다시피 얼마나 냉온탕을 오갔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안보는 것 같아도 상사들은 다
압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현재 금융권의 CEO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직장에 다닐 때 트래픽을 피해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거들어 함께 청소하며 하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회장 귀에까지 들어가 발탁되었고, 현재는 그 직장보다 더 큰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세미나 강의를 위해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어떻게든 하루 4시간을 기도



JC아카데미(노량진교육관)

사람은 믿을만해. 에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라는 평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느냐, 아니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누가 말하지만 약속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 입으로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한번 뱉은 말에는 후회가 없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32,500가지의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업의 신뢰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실업인 세미나에서 자주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열 가지를 잘 하다가도 한 가지 실수를 하면 그동안 잘해온 열 가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수학적으로는 $10-1=9$ 이지만, 세상사에서는 0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리콜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매사 최선을 다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든 대충, 얼렁뚱땅 하는 사람을 보면 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대충 때우고, 퇴근시간 뺄 하면 나가버리는 사람을 누가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남보다 먼저 출근하세요. 늦어서 허둥지둥 들어가지 말고, 먼저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

하고, 집회 때는 7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나는 목회 36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이 약속을 지키려 애써온 결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나 또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쳐온 결과입니다. 내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기사와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신뢰하시기에 전 세계의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확신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에 당당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이 말입니다. Promise is very, very important!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주말예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6:9)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살아보니 인생길이 꽃길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고달프고 힘든 길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후자에 동조하실 것입니다. 저도 후자 쪽입니다. 인생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이리 저리 덜커덩거리면서 가는 비포장도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인생길을 돌아보며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었다’라고 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달라졌나요? 인생길이 마냥 꽃길입니까? No!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인생이 고달픈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47:9). 이는 야곱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아들 요셉을 만난 후,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만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었는데, 왜 야곱의 삶은 험악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실해진다

야곱은 말 그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외삼촌 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일해야 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을, 또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금의환향하여 이제 숨을 돌리며 꽃길 인생을 꿈꿨지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보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노년엔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자식들을 타지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훈련을 이기고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치마폭에서 살던 야곱이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고로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점차 강해지고 성장함을 우리는 압박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축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창32). 하나님은 이때 뿌듯하셨을 겁니다. 예전의 야곱이 아님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야곱은 험한 길을 가면서 강해졌고, 모든 면에 성장했습니다.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혼도 더욱 성장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꽃길이 아닌 험한 길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옛날 캐나다의 동부에서 서부로 활어를 운반하는 데 열차



총회장 이초석 목사

로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운송 중에 물고기의 1/3 가량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연구해보니 이 물고기들이 수조 안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 축 늘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고민하다가 그 후로 수조에 작은 상어 한 마리씩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들이 상어를 피해 도망 다니느라 멀미할 시간이 없어 모두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꽃길만 가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편지도 하게 됩니다. 가장 한가할 때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했던 것처럼. 그러나 험한 길을 갈 때는 정신 차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면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꽃길입니다.

다윗의 삶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이새의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자 그야말로 이제는 바로 왕이 되고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속 좁은 사울 왕의 질투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허구한 날

도망자로 살아야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등 험난준령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였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오롯이 하나님만의 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를 사지로 몰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고난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심정이 고스라니 적혀 있습니다.

저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설 때, 또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되었을 때 제 목회 길은 꽃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단이니 잘못되었다느니 패스컴은 물론이고, 저를 안수한 교단에서조차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가족과도 헤어지는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환상 중에 성경이 열리면서 ‘명성’이란 글씨는 보여주셨건만, 상황은 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할 때마다 방해세력이 있었고, 협박도 잦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와 다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저를 해

외로 나가게 하셨고, 제가 원하고 기도했던 세계교구가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해외집회는 꽃길이었나고요? 아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환경과 조건들이 늘 팽팽에 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KGB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종교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더위를 먹고, 가스에 질식되고, 차량사고, 비행기사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저는 강해졌고, 그것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바라기 인생으로 만들어주었고, 기도의 일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뜻이었던 것입니다.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11:26~27).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1~13). 목적 없는 훈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각과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길이 아닐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고 따라갑시다. 분명히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굴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임을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멋진 추억담이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백삼십 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은 원망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멋진 추억담을 회고한 것입니다.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까? 수렁에 빠졌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또 하나의 추억담이 생길 겁니다. 훗날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왕 앞에 설 때

2000년부터 약 15년 동안 멕시코를 비롯 한 중남미 지역을 목사님과 함께 100여 차례 이상 방문했다. 처음에는 동굴 같은 숙소에서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나마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더위를 먹어가며 지낸 적도 있다. 빈대에 물려 다리에 좁쌀 같은 종기가 나기도 하고, 20시간 넘게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사막지역에 가서는 얼마나 더운지 숨쉬기도 힘들었다. 좀 젊은 나도 그러했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다고 내색 한번 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집회 성공에만 집중하며 기도에 올인하시는 모습이였다. 어디를 가나 ‘아름답다, 좋다’를 연발하시며 초(超)긍정의 마인드로 상황을 장악하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성공자의 멘탈리티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렇게 10여년이 지나자 목사님의 명성은 남미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때부턴 가는 도시마다 권력자들이, 언론이, 재력가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더니 숙소가 달라졌다. 과테말라에 갔을 때는 대통령 아들이 제공하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집회 기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찾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다. 그리고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에 갔을 땐 대통령궁에 들어가 그 나라 최고 권력자 앞에 서서 조언하고 기도해주시는 목사님을 보았다.

목사님은 오직 집회의 성공과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시며 처음부터 일관된 자세로 최선을

다하실 뿐이었다. 잠언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고 말씀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28:1)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간증이라 믿는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왕은 상벌을 통해 통치하기 때문에 왕 앞에 설 때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두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는 마지막 때 회고 큰 보좌 앞의 심판, 곧 최후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벌에 처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도 있게 된다. 왕 앞에는 오로지 혼자 선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이 땅에서 한만큼 그대로 심판과 보상을 받는다.

자, 당신은 왕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는 오로지 각자의 몫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 하지 않던가. 부디 마지막까지 잘 가자.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

이 시대의 키워드는 ‘접속’이다.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몇 번의 클릭으로 접속하면 은행의 돈을 옮길 수도 있고, 비행기, 숙소도 예약할 수 있으며,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를 마음껏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접속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암호, 즉 비밀번호(Password)이다.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틀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총명한 곳으로 가는 하늘 문이 있다고 말한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창고가 열린다. 광야 시절 2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가 쏟아져 나온 하늘의 창고,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지혜가 쏟아져 나온 하늘의 창고, 마귀와 귀신의 군대들을 쓸어버리는 천군 천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창고이다. 시편 100편의 저자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우리에게 그대로 공개해준다. 그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하늘 문 앞으로 달려가서 정확한 암호, 감사를 입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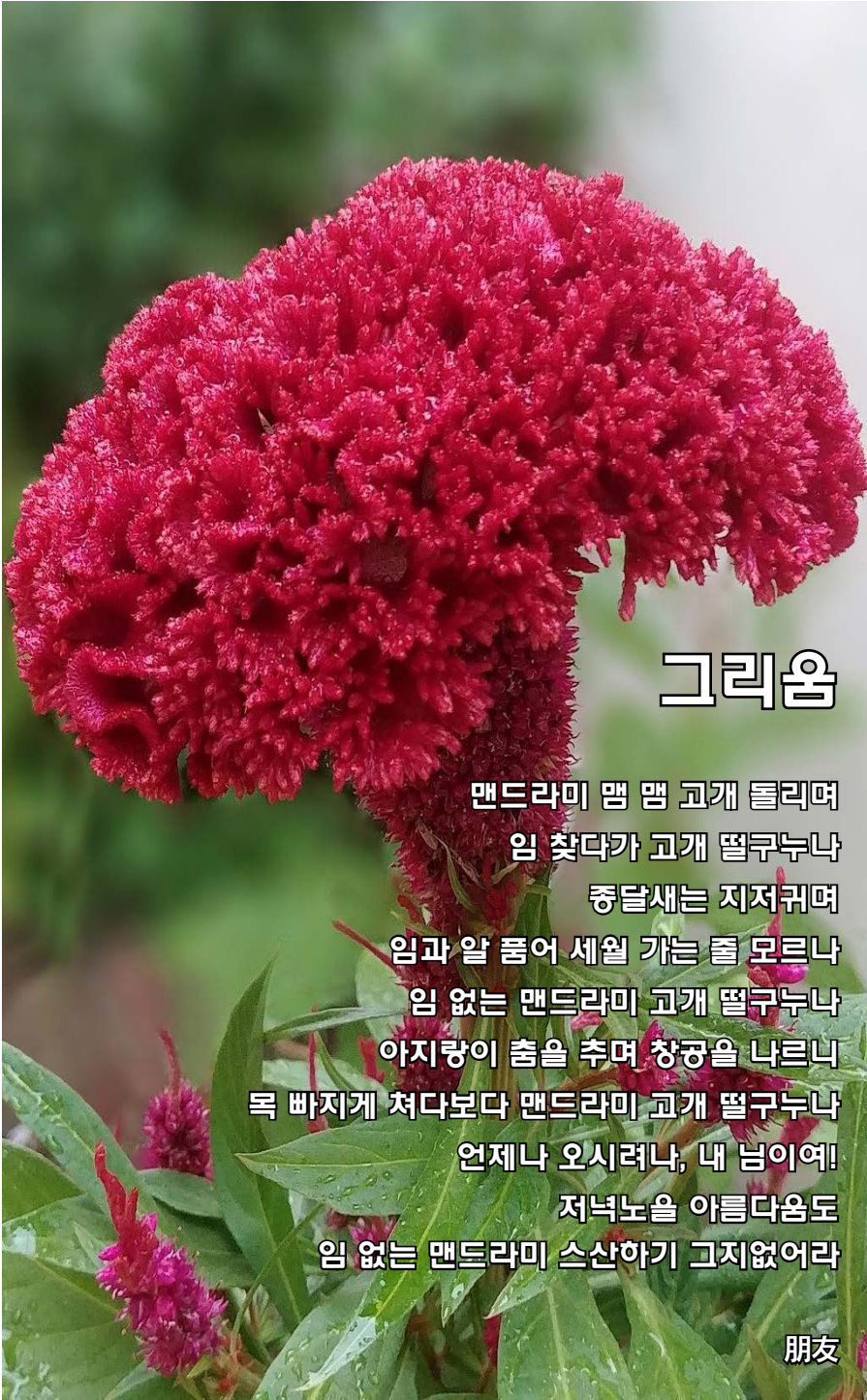
우리가 평소에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면

컴퓨터나 핸드폰은 이렇게 대답한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면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된다.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 문에 사인이 뜰 것이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었던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불평과 원망의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다.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문이 닫히고,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닫힌다. 하늘 문이 열리면 이때까지 나를, 우리 가정과 교회, 국가를 괴롭혔던 귀신의 세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의 기적을 신속히 끌어 당겨올 수 있다.

이제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입력해 보자.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그리움

맨드라미 댜 댜 댜 고개 돌리며
임 찾다가 고개 뿔구누나
중달새는 지저귀며
임과 알 품어 세월 가는 줄 모르나
임 없는 맨드라미 고개 뿔구누나
아지랑이 춤을 추며 창공을 나르니
목 빠지게 쳐다보다 맨드라미 고개 뿔구누나
언제나 오시려나, 내 님이여!
저녁노을 아름다움도
임 없는 맨드라미 스산하기 그지없어라

朋友

:: 오늘의 메시지 ::

나를 닮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이다.

예전에는 그저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인성도, 경험도 무시되고 임명되었다. 그런 이유로 로스쿨이 생겨 정규대학을 거쳐 법률전문대학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변호사나 검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

어느 교회들은 신학대학 나온 목사를 초빙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류대학 일반학과를 졸업하고 외국의 유명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원한다고 한다. 고루 갖춘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학창생활과 경험의 토대 위에 신학이 정립되길 원해서이다.

융통성과 사랑이 모자란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가 이 사회에서도, 교계에서도 넘쳐나고 있다. 바리새인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나도 풍파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게 내 자산이라 믿었다. 남들이 못 살아보고 못 겪어본 삶을 산 것은 주께서 훈련하시는 것이라 믿었다. 걸어온 길이 남들

과 달라도 그것이 결국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과정으로 믿었다.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고 홀로 신학과 전도사, 일본 선교사까지의 여정을 그저 축복의 과정이라 믿고 살았다. 그러나 내가 총회장 목사님처럼 ‘나를 닮아라!’ 할 수 없음이, 참 내 삶의 모자람이다. 자긍심과 자존심은 강하지만 ‘나를 닮아라!’ 평생 하지 못할 것 같다. 시련과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만든다고 믿고 자부하지만, 언제쯤이나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은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고 외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in spite of severe suffering, you welcomed the message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지금 나는 다만 본받고자 노력할 뿐이다. 언젠가는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주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이광주 목사
leekjlkj@naver.com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신앙에세이 ::

돌이키고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와 강도가 있습니다. 둘 중
에 구원받을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시다시피 가롯 유다는 회계를 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을 따라다니며 함께 금식하고 밤
새워 기도하고 갖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
지요. 그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원
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두
렵고 슬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천
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강도는 극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벌금이나
감옥살이 정도의 형벌이 아니라 사형이라
는 최고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
가에 매달렸고 그 옆에는 죄 없이 십자가
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죽음
의 순간에 회개하며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
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애쓰고 힘쓰며 사역
했던 제자가 아니라 악행을 일삼았던 강도
였지요. 마지막에 강도는 돌이켜 예수님
께로 나아갔고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 죄
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선행했

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지
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온 날의 가장
마지막 순간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지요. 그래서 매순간 자신을 되돌아보
며 반성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 다짐
합니다. 부족한 저라서 순간적으로 누군
가를 미워하고 나쁜 생각도 자주 하지만,
그때그때 회개하려 노력합니다. 누군가에
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는 일을 미루
지 않으려 하고요. 첫인상보다는 끝인상
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직장에
서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두 아들 이야기를 종
종 생각해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
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만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결국엔 가
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거절했지
만 결국엔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둘 중
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까요? 예수
님의 물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

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
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와 구원받은
강도를 떠올리게 된 건 에스겔 33장을 읽
다가였습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의인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
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지은 죄
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고.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
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
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러니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간구하
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사무칩니다.
부단히 애를 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동행하는 삶 ::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버
거울 때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일같이
집에 있다 보니 잔소리도 많아지고 티격
태격하기도 하고 버겁고 힘이 들기도 하
다.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본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힘주시고 붙잡아주시라
고, 저 아이들을 잘 키울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저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고. 나의 소중한 아이라고.
잠시 너에게 맡긴 것이라고. 보배롭고 소
중한 저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하나의 인
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라고. 폭풍같이
눈물이 나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평소 생
각하기를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이니
이해하고 존중해줘야지, 아직 옳고 그름
을 잘 모르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며 알려줘야지, 다그치지 말고 친절하
게 설명해줘야지.’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행동과 말투를 보니 아이한
테 늘 화가 나있는 모습이였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속상해하시며
엄마인 나를 깨닫게 하셨다. 너무 죄송해
서 회개하고 다짐했다. 그렇게 큰 깨달음
을 얻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
이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
‘문제 아이에게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
이 있다. 아이에게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
면 심중팔구 부모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

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양육
태도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대하는 나의 가시 돌친 말투와 태도가 아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문제로 나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다.
한동안 아이를 양육한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많
이 괴로웠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
업이다. 축복의 척도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을 두고 어
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을 쏟
으면서 아이를 핑계 삼아, 방패삼아 방해
가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
하실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회개
하며 마음가짐을 바꾸었다. 아이를 잘 양
육하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다만 내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책을 놓고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아
이들은 이 세상이 다 궁금하고, 만져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해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나 양육자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지금은 예배시간이야, 돌아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는 가만히 앉아있어야 해, 저기 가보고 싶
으면 예배 마치고 같이 가보자.”라고 말해
주고 아이의 흥미를 끝만한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한 번 말해서 모르는 것
같다고 그치면 안 된다.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백 번..., 알아들을 때까지 계
속 알려주고 설명해줘야 한다. 아이들마
다 성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고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면 나중
이 더욱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가끔 아이 발달 특성이 그렇다며 위생적
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그저 지
켜보기만 하는 양육자들이 있다. 아직 걷
지 못하는 아이가 길바닥이 궁금하다고
바닥을 뒹굴는데 “재는 원래 저래요, 감당
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한다. 원래
그러는 아이는 없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간단하다. 부모가 보기
에 이 상황이 안전한지, 깨끗한지만 생각
해보면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이들은 보배롭고 존
귀하다. 보배롭다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그에 맞게
양육해내야 한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하
나님 말씀 안에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키
우되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 사
랑으로, 귀한 마음으로. 정효경 집사

추억을 먹고 산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행복한
추억거리가 많은 삶이라 생각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슬한
시련을 겪는다. 그러한 시련을 겪을 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그전에 좋았던 추억에서 오는 것 같다.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다시 그 행
복을 동경하고 소망함으로 지금 지나가
는 어려운 시절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
다. 추억할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행복한 추
억을 많이 만들어 놓는 자가 시험을 잘
통과하고 믿음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
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뜨거웠던 믿음의 기억들, 젊은 날 여
러 지체들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
고 찬양했던 순간들, 말씀이 달아 밤새
도록 성경을 읽으며 울고 웃었던 시간
들, 기도원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을 들으며 하나님 율타리 안에서 느꼈던
평안과 기쁨의 계절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때의 추억이 불현듯
떠오르면 우리 삶에 희망이 주사된다.
가끔 나 자신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 이렇게 말하곤 한다. 삶의 순간순간
을 소중히 여기고,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라고. 사람은 추억
을 먹고 살고, 이 세상을 마칠 때 하늘
로 가져가는 것 한 가지는 그 추억뿐이
라고. 하나님과의 추억, 소중한 사람들
과의 추억!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
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
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
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로다”(시편 42:4)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은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낸다
당신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낼 수 있을까?